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18
올해의 사진

WINTER 2018 | Vol.5 No.3

- 03 팔레스타인 가자 | 마음까지 점령당한 사람들
- 04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 쓰나미와 지진
- 05 콩고민주공화국 | 에볼라
- 06 지중해 | 수색 구조선 Aquarius
- 07 그리스 | 모리아 난민촌
- 0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분쟁을 피해 민주공과 북부에 머무는 난민들
- 09 이라크 | 이라크-IS 전투로 피폐해진 삶: 모술 아동 심리치료
- 10 방글라데시 | 충격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로힝야족
- 11 구호 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 12 국경없는영화제 2018 개최
- 13 후원자 이야기
- 14 국경없는의사회 기업 후원

표지사진 로힝야 난민 아동인 조후라 베쿰(12)과 동생 히를 아민(10)은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삼촌, 이모와 살고 있다. 16명의 가족 중 남매만 살아남았다.
©Robin Hammond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9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facebook.com/msfkorea
@msfkorea
@msfkorea
youtube.com/msfkorea
@국경없는의사회
blog.naver.com/msfkr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티에리 코펜스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디자인 Slowalk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번 연말 소식지에서는 인상 깊은 사진들을 통해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가 대응했던 주요한 인도적 위기를 전해 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며, 영양실조와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악화되는 비상사태와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창궐한 에볼라에 대응했습니다. 2018년 8월 1일 공식 발표되어 지금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는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역대 10번째이자 민주콩고 사상 최악의 사태입니다. 우리는 현지 보건당국과 협력하면서 에볼라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센터를 열었고, 현지 보건소들이 감염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28일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를 강타한 직후에는 현장을 찾아가 긴급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지역민에게 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지역에는 식수 및 위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폭력, 박해, 전쟁,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중해 수색 구조 활동 중에는 구조선 위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반이주민 정서 속에서 유럽을 향해 이동하는 난민과 이주민들을 길 위에서 치료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로힝야 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미얀마 군이 일으킨 폭력 사태를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고, 현재 콕스 바자르의 임시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고국에서 일어난 분쟁을 피해 민주콩고에 머물고 있는 수천 명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앙공) 난민에게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환자, 이라크 모술에서 내전의 참상을 목격한 후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난민 아동과 같이 심리적 외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애쓰시는 헌신적인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팔레스타인 가자 마음까지 점령당한 사람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를 조명하기 위해, 매그넘 사진작가 모이세스 사만(Moises Saman)과 함께 헤브론 곳곳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스라엘 점령이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01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길거리 검문은 위협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며,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02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검문소와 장벽을 뚫고 학교에 가고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



03 유세프(13)는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만 해도 분노에 차 있었고 형제, 친구들과도 자주 싸웠다. 성격도 떨어지고 밤이면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제게 총을 쓰는 바람에 겁에 질리는 꿈을 꿔요. 군인들은 저를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04 유세프는 간단한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은 후 트라우마를 일부 극복할 수 있었다. 살던 집이 무너지는 장면을 눈 앞에서 목격한 이후 충격에 사로잡혀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상황이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쓰나미와 지진

2018년 9월 28일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를 강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비롯해 현지 당국,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긴급 대응에 참여해 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지역 곳곳에 식수 및 위생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01
2018년 9월 28일 술라웨시 중부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팔루시의 탈리세 지역



©Dirna Mayasari/MSF



©Dirna Mayasari/MSF

02
2018년 9월 28일 술라웨시 중부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팔루시의 탈리세 지역

03
인도네시아 중부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심하게 훼손된 시기(Sigi) 지역에 위치한 발루아세 보건소의 모습. 현장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급파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보건소가 문을 닫은 동안 근처의 피해자들에게 응급 구호를 제공했다.



©Rangi Wirantika/MSF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01
테오 박사는 민주콩고의 가장 외진 곳에서 수없이 많은 긴급대응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는 다년간 활동하며 홍역, 콜레라, 황열 등 갖가지 전염병에 대응해 왔지만 에볼라는 이번이 처음이다. 테오 박사는 "경험 많은 제가 갑자기 신참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다"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Carl Theunis/MSF

2018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민주콩고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에볼라 창궐에 대응하여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 에볼라 집단 발병은 2018년 8월 1일 공식 발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300여 명의 환자와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민주콩고 역사상 10번째이자 민주콩고 사상 최악의 사태입니다. 현재 북부 키부와 이투리 지역 곳곳이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에볼라 발생 근원지였던 망기야에 에볼라 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병상 68개를 갖추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74개까지 병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국경없는의사회는 신규 에볼라 발생 지역인 베니에 에볼라 경우센터를 열어 환자 지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민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현지 보건소의 감염 예방, 통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arin Huster/MSF

02 에볼라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치료센터를 나오고 있다.

지중해 수색 구조선 Aquarius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는 수색 구조 선박 아쿠아리우스호를 동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바다에서 구조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3년간 5척의 구조선을 운항하면서 국내법, 국제법을 준수하며 해상 당국과 협력해 8만여 명을 구조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2018년 후반, 이탈리아 정부를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수색 구조 활동을 중단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을 범죄시하기 위해 조직적인 행동을 벌였고, 결국 아쿠아리우스호는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천 명이 넘었으며, 구조선이 없는데도 위험한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비인간적인 리비아 구금센터로 송환되는데 이는 국제해상법과 난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01

©Guglielmo Mangiapane/SOS MEDITERRANEE

01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현지 시간), 리비아 해안과 가까운 지중해 중부에서 25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엔진도 없는 작은 나무 보트에 탄 채 35시간가량 바다에 떠 있다가 구조됐다. 구조 몇 시간 후, 아쿠아리우스는 사람들을 가득 찬 또 다른 나무 보트에서 두 번째 구조 작업을 진행해 116명을 구조했다. 배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인 미성년자도 67명이나 있었다. 구조된 사람들은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토고, 가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다. 응급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없었으나 다수는 위험한 배를 타고 바다를 이동하고 리비아에 머물던 중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이들은 리비아에서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 붙잡혀 있었다고 했다.



02

©Laurin Schmid/SOS MEDITERRANEE

02 지중해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99명. 보트에 타고 있던 다수가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03

©Laurin Schmid/SOS MEDITERRANEE

03 2018년 1월 아쿠아리우스호는 물속에 가라앉던 고무 보트에서 99명을 구조했다. 그 외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2명의 여성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쿠아리우스호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수십 명은 이미 바다에 빠져 있었고, 고무 보트에서는 공기가 빠지고 있었다. 아쿠아리우스호에 승선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팀은 응급 처치를 실시해 아동 6명과 성인 여성 1명을 살려냈다. 생존자 다수는 고무 보트 안으로 들어온 연료를 들이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리스 모리아 난민촌

현재 레스보스의 모리아 난민촌에서는 최대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에 무려 75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캠프가 혼잡해지자 난민들은 캠프를 넓혀 만든 '올리브 그로브'라는 비공식 거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지내던 난민들은 건강이 크게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리아 캠프 외곽에서 의료와 정신 건강 지원을 실시하고, 종종 정신 건강 환자들을 위해 레스보스섬 수도 미틸레네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Anna Pantelia/MSF



02

©Robin Hammond/Witness Change

01 국경없는의사회 소아과의 카롤라 부세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생후 3개월 된 쌍둥이를 진찰하고 있다. 이 쌍둥이는 모리아 캠프 외곽에서 가족들과 함께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스 도착 당시 쌍둥이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02 육지에 도착한 이주민들이 두고 간 구명조끼 수천 개가 그리스 레스보스 해안에 쌓여 있다. 지금도 안전을 찾아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는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한다. 터키와 에게해를 거쳐 가려던 사람들은 그리스 군도에 발이 묶인 채 기억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분쟁을 피해 민주콩고 북부에 머무는 난민들

2017년 5월 이후로 민주콩고 그바돌리테, 모바일-음봉고 지역, 우방기 강변에는 격렬한 분쟁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수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01

©Carl Theunis/MSF

01 간질을 앓고 있는 콩고 출신 콜로(37)는 최근 발작 증세를 보이다 볼 속에 넘어졌다. 이후 두 달간 모바일-음봉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한 달간 더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 병원에 있는 콜로는 집에 있는 자녀 7명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이다. 이렇듯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한 사람들은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다.

02 콤부 마을에 마련된 예방접종처에서 한 아동이 엄마와 함께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주민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들은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 속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이번이 두 번째다.

03 찬셀라는 발에 작은 파편이 들어가 감염됐다. 전통적인 치료법을 사용하고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아 마침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몇 달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탈출했다. 현재는 여동생의 돌봄을 받고 있지만,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02

©Carl Theunis/MSF



03

©Carl Theunis/MSF

이라크 이라크-IS 전투로 피폐해진 삶: 모술 아동 심리치료

라샤는 아버지와 함께 이라크 북부 피난민 캠프에 살고 있습니다. 모술에 살던 라샤는 삼촌이 살해당하고 IS-이라크군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모술을 탈출했습니다. 2017년 3월 부녀는 아르빌 인근 하산삼 캠프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라샤는 모술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일들 때문에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 국경없는의사회 심리학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공포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1991년부터 이라크에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 만성질환 치료, 전쟁부상자 수술 재활, 정신 건강 지원, 보건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르빌, 디알라, 니네와, 키르쿠크, 안바르, 바그다드 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술, 아르빌 근처 실함민 캠프 주변 6개 장소에서는 고혈압 등의 비감염성 질환 치료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로는 심리·정신과 상담, 집단 치료, 심리·사회적 상담, 아동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01

©Sacha Myers/MSF



02

©Sacha Myers/MSF

01 이라크 북부의 한 피난민 캠프에서 라샤(11)가 텐트 밖에 앉아 국경없는의사회 심리학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국경없는의사회에 찾아가기도 해요. 국경없는의사회에서 치료해 준 덕분에 훨씬 좋아졌어요. IS가 쳐들어왔을 때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예전의 저로 돌아온 거예요. IS가 오기 전의 제 모습이에요.”

02 라샤와 할리프 부녀

방글라데시 충격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로HING야족

2017년 8월, 로HING야족을 겨냥해 미안마군이 일으킨 조직적인 폭력 사태로 최소 70만 명의 로HING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가 된 이곳 임시 난민 캠프의 생활 여건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깨끗한 물, 위생 시설, 적절한 영양, 의료, 안전한 거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안마에서 겪은 일들로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 지내면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로HING야 난민과 이들을 수용한 방글라데시 지역민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로HING야 난민 자이다 베굼(20). 오른팔에 낫째 아기 옴마 하비바가 안겨 있다. 하비바는 이 사진이 찍힌 날 새벽 2시에 태어났다.



01

©Robin Hammond



02

©Robin Hammond

02
로HING야 난민 아동 조후라 베굼(12)이 마드라사에서 책을 읽고 있다. 이슬람 교리학교인 마드라사는 로HING야 아동들의 유일한 학교다. 조후라와 동생 히를 아민(10)은 콕스 바자르의 한 난민 캠프에서 이모, 삼촌과 지내고 있다. 원래 식구는 16명이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미안마 라카인에서 미안마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군인들은 이제 괜찮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남자들과 여자들을 따로 나눴어요. 제 눈으로 다 봤어요. 사람들은 전부 강가로 끌려갔어요. 예쁜 여자들은 어디론가 데려갔고 할아버지들은 죽었어요. 죽이기 전에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라고 시켰어요." 조후라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다가 강가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총을 쏘어요. 저는 강에서 나와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언니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얼굴에 총을 맞아 온통 피범벅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더니 어떤 남자가 저를 안고 달리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제 남동생을 만났어요."

구호 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위험에 처한 현장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호 활동가는 긴급 상황(자연 재해 혹은 인재·전염병·무력 분쟁 등), 만성적인 분쟁, 그 밖의 특수한 목적의 의료 현장에 파견되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와 기술로 사람들을 돕는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저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합니다

저는 진료를 찾고 의료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모두 국경없는의사회의 구호 활동가입니다.

국경을 넘는 구호활동가, 다음은 당신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구호 활동가 채용

채용분야

의료분야

일반의, 내과의, 가정의학과, 응급의, 소아과의, 외과의, 마취과의, 정형외과의, 산부인과, 정신과의, 심리학자, 역학자, 조산사, 간호사, 약사, 보건 홍보 담당자 등

비의료분야

로지스티션 (물류·전기·기계 정비·건축 기술인 등) 행정 담당자 (재무/인사)

기본 자격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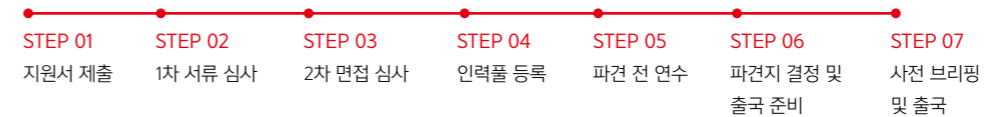
- ✓ 최소 2~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 파견 즉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능력 (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융통성
- ✓ 다국적 다문화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근무할 수 있는 능력
- ✓ 영어/프랑스어 구사력
- ✓ 국경없는의사회 원칙과 가치에 대한 책임감

채용/지원 문의

www.msf.or.kr/work-field
tothefield@seoul.msf.org

국경없는의사회 채용과정

채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가의 한마디

김아진 행정가 | 활동 국가 예멘, 에티오피아 외

"한 파견지에서 임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언젠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수십 번씩 합니다. 하지만 자석처럼 이 일에 이끌리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구호 활동에 제가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박선영 간호사 | 활동 국가 남수단, 요르단 외

"2018년 5월, 가자 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대규모 부상자가 발생한 날, 우리 팀은 하루에만 17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어 수술을 모두 마치고 나니 그제야 긴장이 풀려 힘이 빠진 저를, 같은 팀 영국인 의사가 고맙다며 수고했다고 안아줬습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진한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이선영 산부인과외 | 활동 국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외

"한국에 저 말고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는 환자들을 치료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자라도 '현장에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가야 되고 결국 그렇게 현장에 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국경없는영화제 2018 개최



국경없는의사회의 두 번째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8'(Films Without Borders 2018)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11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경없는영화제는 '생명을 살리는 외로운 싸움'이라는 슬로건 하에, 구호 활동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참혹한 실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병원 폭격', '결핵', '이주민, 난민', '파괴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작년 상영 당시 관객 반응이 좋았던 <어플릭션>, <위험한 곳으로 더 가까이> 2편을 비롯해, <최전선을 지키는 의사들: 난민, 그들의 험난한 겨울>, <아프가니스탄: 화염에 휩싸인 병원>, <부서진 기억들>, <결핵: 무자비한 길러> 등 총 7편이 상영됐습니다. 상영작에 대한 해피빈 티켓 사전 예매율은 99%를 기록했으며, 이 중 4편의 다큐멘터리는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려 도로 사정 등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좌석 점유율은 평균 71%를 기록했으며 4편의 다큐멘터리 이후 가진 현장 토크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스피커로 참여해 영화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분들의 질문이 많아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23일 저녁 열린 개막식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배우 김성령님이 참여해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총 33명의 서포터즈들이 현장 업무와 온라인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희망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관객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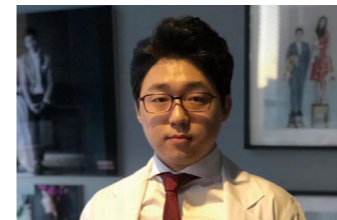
후원자 이야기

구호 현장으로 함께 달리는 후원자



국경없는의사회 '러닝메이트'란?

구호 현장의 활동가들이 더욱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자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러닝메이트' 캠페인을 통해,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인 이비인후과 전공의입니다. 중학교 때 영어 독해 지문을 통해 처음으로 국경없는의사회에 대해 알게 됐고 그 후로 멋진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누리는 일상에서 감사함을 잊고 살 때 국경없는의사회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소식지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제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후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뉴스에서 난민, 전쟁 소식을 접할 때도 그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을 펼치고 있을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러닝메이트 정영도 후원자님 | 30세, 의사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늘 다짐만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 생활 초반, 첫 직장을 다닐 때 거리 모임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담당자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퇴사 이후에 성실하게 후원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후원 금액을 보니, 계속 후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후원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매달 소액이지만 쌓인 금액을 보니 적금을 보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러닝메이트 김다온 후원자님 | 24세, 직장인



“도시를 떠나 산과 강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마침 귀국 후 거리에서 만난 국경없는의사회 캠페이너의 따뜻한 설명에 후원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명예, 관계에서 행복과 편안함을 느끼려고 애썼는데, 후원하면서는 저만의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은 파랑새처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국경없는의사회는 '내 마음의 파랑새' 같습니다.”

러닝메이트 박미선 후원자님 | 56세, 주부



“부산에서 틈틈이 네일아트를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마음속으로 후원을 생각하던 중, 지인 소개로 국경없는의사회를 알게 되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1주년이 되었을 때 뿌듯했어요. 자축하는 의미로 국경없는의사회 런닝맨을 네일아트로 표현해봤어요.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국경없는의사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땀 한땀 그려보았어요. 후원 2주년에는 제 실력도 더 성장해 있겠죠?”

러닝메이트 김희연 후원자님 | 37세, 직장인



'러닝메이트' 페이지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보고, 후원자님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인스타그램 공유 이벤트를 통해 선정되신 분들께는 국경없는의사회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기업 후원

국경없는의사회의 '후원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 곳은 항상 응급 상황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 후원 캠페인을 2019년 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 위기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후원 캠페인 안내

캠페인 기간 2018년 11월 ~ 2019년 1월 30일
캠페인 내용 전 세계 의료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정기 후원, 혹은 100만 원 이상 일시 후원하면 국경없는의사회 후원 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현판 혹은 스티커 증정

국경없는의사회 연말 후원에 참여하는 방법



- 기업 이름으로 후원하기
-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연말 행사를 통한 모금 활동으로 후원하기
- 기업의 임직원과 소비자들이 함께 일시 후원하기 (기업 매칭 기부)
- 공동 마케팅을 통해 기업 상품 수익의 일부를 후원하기



연말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면 소비자, 고객, 임직원분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 후원 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현판 혹은 스티커를 증정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9-508856 (예금주: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 문의 국경없는의사회 후원 기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02-3703-3573 혹은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로 문의 주십시오.

신한카드 아름인 포인트로 국경없는의사회를 후원하세요!

올 연말 잠자고 있는 신한카드 아름인 포인트가 있다면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하세요! 2018년 11월부터 신한카드 아름인 포인트 혹은 신용카드로 국경없는의사회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아름인 사이트 <https://arumin.shinhancard.com/> 검색창에 '국경없는의사회'를 검색하시면 정기 기부 혹은 일시 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후원 및 파트너십 문의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95% 이상의 재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에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02-3703-35736 |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 | 운영시간 월-금 09:00-17:00 (주말/공휴일 제외)

동전보다 작은 것



콩고민주공화국에 사는 세 살 시스카의 팔 두께는 이 동전보다 작습니다.

함께, 세상을 치료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연말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국경없는의사회는 입원 치료식 센터 운영을 통해 심각한 중증 영양실조 아동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45,000원 후원으로 한 아이에게 5주 동안 영양치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세상을 치료하는 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후원 참여 문의 : 02-3703-3555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09-508856 support@msf.or.kr 지정 기부금 단체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50분(현지 시간), 리비아 해안과 가까운 지중해 중부에서 25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엔진도 없는 작은 나무 보트에 탄 채 35시간가량 바다에 떠 있다가 구조됐다. 구조 몇 시간 후, 아쿠아리우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또 다른 나무 보트에서 두 번째 구조 작업을 진행해 116명을 구조했다. 배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인 미성년자도 67명이나 있었다. 구조된 사람들은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토고, 가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출신이었다. 이로부터 몇 달 후, 아쿠아리우스는 유럽 국가들이 인도적 수색 구조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꾸준히 벌인 조직적 행동 때문에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Guglielmo Mangiapane/SOS MEDITERRANEE